

[보도자료] 강원도 산골짜기 폐광촌도 ‘쿠팡권’으로 지방 인구소멸 위험 지역에 무료 로켓배송 늘어난다

2024. 1. 29.



쿠팡카가 이른 아침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산골짜기에 위치한 마을로 배송을 나가고 있다.

- 쿠팡, 물류 인프라 투자로 로켓배송 권역 확장 강원도 산골에도 로켓배송 진출
- 도서산간·신도시 고객들 “생필품 불모지였던 인구절벽 지역이 탈바꿈”
- 모세혈관 같은 배송 네트워크 전국 구축 “로켓배송 혜택, 소외된 지방으로 넓혀”

2024. 01. 29. 서울 - 쿠팡이 꾸준한 물류 인프라 투자로 ‘쿠팡권(로켓배송 가능 지역)’을 넓혀가면서 강원도 폐광촌 등 전국 주요 인구소멸 위험 지역에 로켓배송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물류 사각지대’에서 쿠팡권으로 발돋움한 도서산간·중소도시의 고객들 사이에서 “쿠팡을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생필품 불모지’였던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 강원도 폐광촌 등 인구소멸 지역으로 로켓 확장 “일상 불편 한번에 해소 생활필수품·먹거리 쉽게 구해요”

쿠팡은 최근 수 년간 꾸준히 쿠택권을 확대해 가면서 인구 감소 위기에 놓인 도서산간 지역과 소도시까지 로켓배송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관심 지역 포함)인 강원 강릉·동해·삼척과 경남 통영·사천, 경북 안동·영천·영주·경주, 전남 영암과 전북 김제, 충남 공주·논산·보령·예산, 경기 가평 등 16곳으로 쿠택권을 확대했다. 또 경남 거제·진주와 전남 순천·여수·목포·나주, 충북 음성·증평·진천 등 지방의 여러 시군구 지역에서도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읍면동 단위로 계속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다.

지역 경제가 어려움에 놓인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이 대표적이다. 해발고도 1000m가 넘는 태백산맥 고봉들로 둘러 쌓인 도계읍은 다양한 생필품과 식품을 수시로 구하기에 불편이 컸다. 1970년대만 해도 인구가 5만명에 육박한 탄광촌이었지만 탈석탄 정책의 영향으로 최근 인구는 9000명대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로켓배송 진출로 한달 고객 주문 건수가 5000건에 이르며 지역에 활기가 돌고 있다.

도계읍 토박이인 고객 이성호(62) 씨는 “도계읍은 과거 온라인 쇼핑을 하면 물건을 받기까지 일주일 이상 걸리는 물류 낙후지대였다”며 “하지만 로켓배송을 이용하면서 오전 10시에 로션을 주문하니 당일 오후 6시에 도착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8살 자녀를 둔 도계읍 주민 강선희(31)씨는 “쿠팡이 들어오기 전엔 차를 타고 1시간가량 달려 강릉이나 삼척 등 도심으로 나가 장을 봐야 했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사라졌다”며 “어린 자녀를 위한 장난감부터 생활필수품과 먹거리를 쿠팡에서 구한다”고 말했다.



◇ 쿠팡, 쿠세권 물류망에 6조2000억원 투자 로켓배송 혜택 지방으로 넓히자 삶의 질 상승

어린 자녀를 둔 2040 젊은 가구들이 많은 작은 신도시에서도 쿠팡 로켓배송 인기가 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로켓배송을 시작한 경남 사송신도시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약 7000가구가 입주한 이 신도시는 신축 아파트가 대부분으로, 다양한 생필품과 식품을 구할 곳이 많지 않다. 현재 쿠팡 로켓배송 도입 이후 매일 약 1000여 건이 넘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사송신도시에 거주하는 고객 김모 씨도 “아파트만 많았지, 생활에 필요한 의류부터 공산품을 구하기 어려운 ‘장보기 사막’ 같은 곳이었는데 쿠팡이 주민들의 삶을 바꿔놨다”고 했다. 이제 도서산간 과 신도시의 쿠팡 고객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장을 보러 가거나 통상 2~3일 소요되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됐다. 또 추가 도서산간 배송비 지불 부담 없이 쿠팡으로 빠른 무료 로켓배송 이용이 가능해졌다.

쿠팡은 지난 2014년 로켓배송을 시작한 이후 국내 물류 인프라 확보에 6조2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전국 30개 지역에 100여 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쿠세권을 확대해왔다.

특히 2021년 미국 증시 상장 이후 2년간(2021~2022년) 약 2조3000억원(19억달러)을 미국 시장에서 조달해 한국에 투자했다. 쿠팡이 미국에서 조달해 2년간 한국에 투자한 19억달러는 같은 기간 미국이 한국에 투자한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액(54억6100만달러)의 35%에 이른다. 배송의 출발부터 고객의 제품 수령까지 책임지는 독자적인 ‘엔드투엔드(end-to-end)’ 풀필먼트 시스템을 강화해 전국 곳곳에 모세혈관 같은 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쿠팡의 전국 물류망 구축은 기존에 수도권에 국한됐던 로켓배송 혜택을 소외된 지방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소비자 삶의 질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